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역량 강화한다

전북교육청, 오순도순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확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19학년도 2학기 오순도순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계획을 밝혔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1학기에 8개 시군 17개 학교에서 42과목을 오프라인상에서만 운영했던 오순도순 공동교육과정을 2학기에는 온라인까지 확대해 전주를 비롯한 8개 시군 19개 학교에서 50개 과목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어 회화, 스페인어 회화, 독일어 회화, 프랑스어 회화 등을 전북의국어 고등학교에 개설해 일반고 학생들의 미래인재 역량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거리가 멀어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전주고등학교에 사회 2과목(현대 세계의 변화, 국제 경제), 남원 서진여고에 과학 1과목(과학사)을 개설해 운영한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거점학교에서 지정한 일자·시간에 학교 또는 가정의 컴퓨터를 이용해 교실닷컴(<https://edu.classon.kr>)에 접속해 수강하면 된다.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거점학교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에 임하면 된다.

서류 제출기한 및 면접일자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학교교육과-업무마당-일반고 교육역량강화), 거점학교 홈페이지, 소속학교 홈페이지 등을 찾아가면 볼 수 있다.

오순도순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는 전주지역 6교, 군산지역 2교, 익산지역 3교, 정읍지역 4교, 남원지역 1교, 장수지역 1교, 순창지역 1교, 고창지역 1교이며 거점학교별로 운영하는 과목은 당해 학교에서 3개년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지 못한 과목이다.

이는 학생의 진로·적성·흥미에 따른 다양한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전북교육청 교육과정 다양화 정책의 일부이다.

특히 공동교육과정의 학생 선발과정을 살펴보면 전북지역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면접과정을 통해 인성, 흥미, 참여동기 등 성적과는 무관한 학생의 진로와 흥미만을 살펴본 후 참여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또한 전체 수업과정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중심 활동형·모둠행·토론형·발표형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진로·적성·흥미를 고려한 교육과정 다양화로 학생 과목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학생의 꿈과 재능을 키워주는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수학교육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전북도교육청이 수학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 전북 수학교육 토론회'가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전주 리투체 별관에서 열린다.

도내 초·중·고 수학 담당교사와 교육전문직 15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워주고,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수학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9 전북수학교육 추진현황 및 전북수학체험센터 운영 안내, 서울대 수학교육과 최영기 교수의 특강, 주제별 분임토의 등이 있다.

이날 최 교수는 "아름다운 수학"을 주제로 수학이 단순한 계산의 반복, 복잡한 수식을 풀어나가는 지겨운 과정이 아닌 수학의 정신과 그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 수학교육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분임토의도 이뤄진다. △우리학교 수학과화 만들기 △체험·탐구중심 수학수업 △과정중심평가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 △수학탐구대회 △수학클리닉 △실용통계교육 △수학산책 등 8가지 주제로 분임별 토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와 전북교육청이 중·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북대-전북교육청, 중·고등교육 발전 '맞손'

교육 상호 혁신·교육봉사 지원·교원 전문성 향상 공동연구 등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중등 및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0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김동원 총장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양 기관이 중등 및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교육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중등 및 고등교육의 상호 혁신을 비롯해 교수·학습과 교육봉사 지원 및 교류,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및 학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업 운영의 현장성과 전문화를 위한 상호 교육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 그리고 학술자료 및 다양한 정보 등도 교환하기로 했다.

김동원 총장은 "변화의 속도가 빠른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전북지역 교육공동체인 전북대와 도교육청이 교육

/장은성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폐교 활용 자연생태체험 활동 펼쳐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정동일)은 지난 5일 관내 산서초등학교 4, 6학년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감자 캐기 수학 체험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폐교(구.원촌초) 운동장을 자연생태 체험학습장으로 만들어 감자, 옥수수, 고구마를 심었다. 땅속 깊이 숨은 감자를 찾아라에 맞춰 학생들은 호미

로 감자를 직접 캐다. 감자캐기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제가 직접 이렇게 많이 캐는데 캐면 갠수록 즐거워 더 즐거웠다"고 말했다.

정동일 교육장은 "앞으로도 폐교를 활용해 학생들이 교육과정과 연계한

/장은성 기자

무선전송 단일전력단 교·직류 컨버터

전주대 김민지씨, 전력전자학회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전주대학교는 최근 충남 예산 리솜스파에서 열린 (사)전력전자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전기전자공학 김민지씨(대학원 3학기)가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중견연구 사업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해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 충전시스템인 '무선전력전송을 위한 단일전력단 교류-직류 컨버터'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논문은 기존 PFC단과 DC/DC단을 하나의 컨버터로 일체화 한 '무선전력전송 충전시스템을 위한 브릿지리스(Bridgeless) AC/DC 컨버터'를 적용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 충전시스템의 부품 수를 절감하고 사이즈까지 줄일 수 있어 공정 및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김씨는 "평소 전기자동차(EV) 충전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보급화를 위해 연구하던 중에 이번 논문상까지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현재 단방향 충전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양방향 무선전력전송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수 지도교수(전기전자공학



김민지씨는 학부 시절부터 학업과 연구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 왔다. "그 노력의 결실로 이 공계의 '여성 유리천장'을 깨고, 수상까지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7년 학부과정 4학년 재학 중에 (사)대한전기학회에서 개최한 제2회 여성엔지니어 캠퍼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사)전력전자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도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후 대학원에 입학해 전력전자분야에 이층 연구한 결과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전력전자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해 2회 연속 수상자가 됐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 진학 박람회 성료

맞춤형 입학정보 제공

군산대학교는 최근 군산대학교 체육관 일대에서 2019년 진로·진학 박람회를 개최하고 전북, 충남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전공체험 및 진로탐색을 위한 맞춤형 입학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박람회는 각 학과에 대한 정보와 전공 및 진로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모집단위 및 변화하는 대입 전형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위해 각 학과별 1부스가 설치되었고, 전북, 충남 지역 학생 및 학부모, 교사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국제교류교육원, 대학일자리센터, 박물관, 창업교육센터, 학생군사교육단,

학생생활관, 학생지원과, 황룡인재교육원, 3D프로 부속 공장, 주요 사업단 등 주요 부서 및 시설, 사업단 등도 부스를 설치했다. 이들 부스를 통해서 는 재학생 적용 지원 프로그램, 대학 특장점 등 군산대학교가 구비한 우수한 교육 인프라가 소개되었다.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진학지도를 위한 전형 자료도 공유했다. 이외에 진로진학 설명회 및 입학상담 등을 통해 2020학년도 학생선발 및 학년별 대입 지원전략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군산대학교에서 새로 제작한 캐릭터인 '용용친구들(구니, 사니, 예니, 유니)'을 활용하여 각 학과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하고 포토존을 구성하는 등 청소년들의 눈높이와 감성에 맞춘 캐릭터가 많은 것도 사람들에게 눈길을 끌었다.

/군산=김경훈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